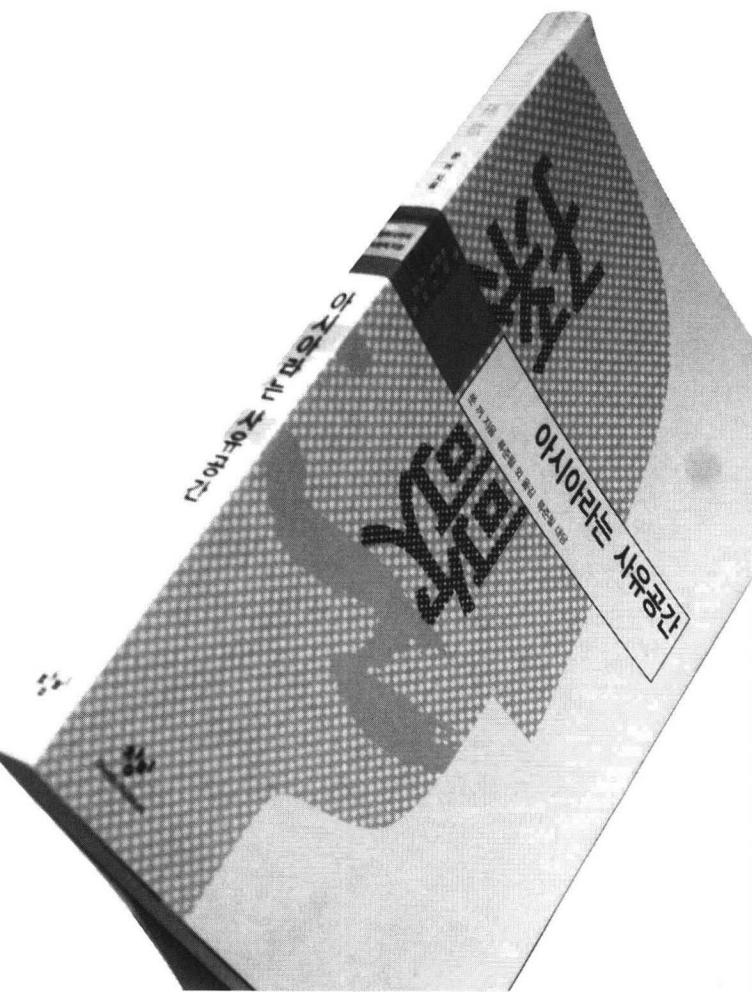


거짓 화해 대신 정직한 몰이해와 대면하기

그 때 거기, 역사적 체험이 담긴 쓴꺼의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쓴꺼 지음 | 류준필 옮김 | 창비 | 220쪽 | 값 9,5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터'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체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작년 여름,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다. 하찮은 단어 하나라도 매번 사전을 더듬어가며 생소한 나라의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외국인들과의 조우. 그것은 한국문학을 낯은 부적처럼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스스로를 '나'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브루스 폴튼 선생님의 꿈은 황순원 소설을 완역하는 것이란다. 한국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캐나다에서, 노년의 학자는 '하찮은' 방언과 토속어까지 영어의 질감으로 되살려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에게겐 대수롭지 않은 조사 하나가 그에게는 작품의 해석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다크호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데면데면하게 넘어가는 구절이 그에게는 견잡을 수 없는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국어라는 자원을 진정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국의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품는 것일까. 모국어라는 무기는 연구자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드넓은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지 않을까.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일본인이나 모로코인이나 아랍인이나 이탈리아인이었다면, 내가 무덤덤하게 스쳐 갔던 모든 텍스트들은 사뭇 다른 빛깔로 다가오지 않을까.

때론 친숙함이야말로 권력이 되기 쉽고 친밀함이야말로 폭력이 되기 쉬운 것이 아닌지. 우리는 모국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어를 너무 자랑스레 여기거나, 혹은 무심히 지나쳐가지는 않는가. 자국의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는 과장하며 치욕을 은폐하지는 않는가. 왜 '나'나 '우리'라는 주체를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어떻게 과거의 고구려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을 그리도 쉽게 동일화시키는 걸까. 끊임없이 '나'를 낮설게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의 한국문학 연구가 얼핏 덜 아카데미하고 덜 세련되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한 편의 소설을 읽기 위해 나보다 수십 배 많은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작품 하나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리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나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편하게 생략해온 셈이다. 모국어와 국사에 너무도 친숙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사유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 아닐까.

내가 쓴꺼의 《아시아라는 사유공간》을 읽으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아시아인'으로 규정되는 내가 아시아에 대해 이토록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책의 제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다. 아시아라는 것이

어떻게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왜 아시아를 사유의 '대상'이 아닌 '공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당최 알 수 없었다. 이 책의 제목은 '아시아인은 아시아에 대해 가장 무지하다.'는 점을 살포시 숨기고 있는 것만 같다. 무지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대화, 좌표화, 거리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아시아인의 옥시덴탈리즘이 서구인의 오리엔탈리즘보다 훨씬 무서운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서구인이 동양인을 타자화하는 것보다도 동양인이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것이 훨씬 소름끼치는 일이다.

아시아 안쪽에서 아시아 바깥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단순한 '대상'이 아닌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시아 내부에서 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사유의 대상이 아닌 사유의 공간으로 삼는 유체이탈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썬꺼는 "만약 진정으로 자기 문화로 진입하길 희망한다면, 우선 다른 문화에 진입하는 실험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중국인인 그녀는 중국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차라리 일본으로 떠나는 모험을 감행한다. 그렇게 한 번은 멀리 떠났다가 다시 힘겹게 에둘러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견고한 모국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역사는 사실의 자취가 아니라 해석 혹은 오독의 자취가 아닌가. 썬꺼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 역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아니 언제나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말랑말랑한 찰흙 반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녀는 역사가의 이해득실은 물론 확고한 신념과 자기 정체성까지 철저히 버리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경험을 가능한한 '그때 거기', 사건의 현장성속으로 가져가 체험하려 한다. 그녀는 '알려고' 하기 이전에 우선 그때 그 자리에 조용히 돌아가 마냥 '서성이고자' 한다. 그때 그 사건의 분위기를, 오고가던 말 사이에 꿈틀대던 행간의 숨결을, 느끼고 호흡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결론 내리고 해석하고 이름붙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질문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의 파시즘적 행보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러일 전쟁 승리 당사자였다면 얼마나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러일전쟁의 승리라는 파천황의 사건 앞에서 '동양의 승리'라는 환희에 젖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역사적 인물을 친일·항일의 잣대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친일과 반일의 경계에 섰을 때, 아니 끔찍한 교문과 순순한 협력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

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 '대답할 수 없음'에 우리는 우선 정직해야 하지 않을까.

소통의 시작은 이러한 몰이해의 극단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100년 전은 커녕 1년 전의 사건조차도, 우리는 결코 그때 거기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긍정하는 것. "공통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는 형식" 보다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왜 얼마나 소통이 어려운지 확인"하는 작업이야말로 수평적 연대의 투명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짓 화해 대신 정직한 몰이해와 대면할 때, 차라리 오해의 심연에서 투명하게 서로의 맨얼굴을 바라볼 때 동아시아적 시각의 교환과 생산적 접근은 가능해질 것이다. 실감의 차원과 논리의 차원은 다르다. 역사적 '실감' 자체, 정서적 경험 자체를 연구의 자료로 삼는 썬꺼의 노력은 곧 연구의 결과물 이전에 연구자 자신, '나'의 공간과 시간을 묻는 일과 분리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글을 쓸 때 '나'라는 주어를 쓰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한 가지 역사적 질문이라도 제대로 던질 수 있겠는가. 나는 지식인의 결과물(논문)만이 아닌, 지식인의 연구의 과정과 일상적 고뇌가 오롯이 담긴 생생한 육성을 듣고 싶다. 연구자의 고민과 실감을 철저히 논문적 제도의 틀로 걸러낸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학이야말로 지식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주범이 아닌가.

썬꺼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지금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있는가'를 질문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듯 하다. 그녀는 중국인으로서의 '나', 중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사상사를 연구하는 '나', 일상인으로서의 '나'의 관점 모두를 연구의 시각에 포함시킨다. 그 세 가지 '나'가 자료의 틈새에서 저마다 동상이몽으로 뒤척이는 동안, 논문의 글쓰기에서 흔히 배제되는 '나'가 아주 조심스레 개입됨으로써, 그녀의 연구는 곧 그녀의 삶으로 몰들어 간다.

어쩌면, 연구의 결과와 실용적 목표, 화폐적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 사회의 지식 풍토가 황우석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닐까.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의 과정 자체가 삶의 가치이고 과학자로서의 자존이자 명예였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면, 이런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났을까. 타고르는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빌려올 수 있지만 성격을 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내 운명과 내 성격과 내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공부가 어떤 힘을 지닐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아프게 되새김질된다. **한민**